

【 종교·복지 】

“장애는 남과 조금 다른 개성 운동 통해 아픔 이겨냈어요”



장애 극복 화순 배드민턴聯 조 준성 회장

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저에게 장애는 남과 조금 다른 개성일 뿐이에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장애’가 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의 장애를 개성이라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만, 사실 힘든 시간도 없지 않았다. 어린 시절 부모가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놀다가 기계 벨트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하면서 오른팔을 잃게 됐던 조 회장은 사고 후 주위의 놀림과 시선 때문에 어린 시절 방향도 많이 왔다. 또 성인이 된 뒤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피하면서 대인관계 증상까지 생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이렇게 생활하면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조 회장은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싶었던 테니스를 시작했지만 얼마 안돼 그만 뒀다. 주위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그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지난 2003년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한 뒤 조 회장은 180도 변했다. 그를 따뜻하게 받아준 동호인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배드민턴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조 회장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즐기게 됐고 주변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운동하는 즐거움을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이웃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도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 회장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없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없었던 동호인들을 위해 지난 2004년 사비를 털어 ‘밝은 벗’이란 뜻을 가진 배드민턴 체육관 ‘성우(成友)관’를 만들었다. 화순위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모든 사제 일부와 동호인, 이웃들의 도움으로 체육관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다.

현재 ‘성우관’을 이용하는 동호인은 400명이 넘는다. 아직은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자신처럼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를 극복해 주위에 진한 감동을 주고 있는 조준성씨와 가족 모습(위) 조씨(아래 오른쪽)는 틈나는대로 체육관을 찾아 동호인들과 배드민턴을 즐긴다.

장애인들이 쉽게 찾는 체육시설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자신이 운동을 통해 장애의 아픔을 극복한 것 처럼 말이다. 조 회장은 “자신을 장애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면 마음마저

장애가 생긴다”며 “스스로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다 보면 큰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도일

미국에서는 사라져가는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런데 그 기록의 방식이 매우 미국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소수민족들의 말을 성경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기록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 허다하다. 이들과 문화와 습관이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유대)이나 미국적 사고구조로는 그 민족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말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영혼과도 같기 때문에 차라리 보존을 하려면 그 민족의 전해오는 신화나 전설, 여러 가지 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수민족의 말을 발음대로 쓴 글(글

정신이 있는 교육

이 없는 경우)과 그 글의 번역본만 있으면 몇천 년 뒤에도 그 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언어가 성경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 민족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대민족은 나라없이 오랜 기간을 살았지만 언어는 철저하게 지켜왔다. 비스킷을 히브리어로 만들어 아기에 입에 넣어 글자를 기억하도록 할 정도로 언어는 곧 하늘이요 나라였다.

한 세대만 지나도 한글을 모르는 우리나라 이민자와 달리 중국인은 몇 세대를 외국에서 살아도 결코 중국어를 잊고 살지 않는다. 단일 민족으로 아닌 중국인에게 있어 중국어는 곧 민족 자체였던 것이다.

요즘 새로 들어올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영어에 대한 교육의 강화의 일환으로 국사와 국어를 영어로 강의하는 말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서구에서는 나날이 불교신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모국어 영어가 아닌 사람이 많다.

그런데 왜 유창하지도 않은 영어를 들으며 모으려는 것일까? 그것은 비록 어눌한 영어지만 그 속에 서양인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핵심도 여기서 착안해야 한다. 영어를 잘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이 듣고싶어 하도록 그 말 속에 담을 것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자신의 철학이 없고 문화적 소양이 없으면서 그들의 언어만 할 줄 한다면 그들은 우리와 장사는 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용 가치가 많은 영어나 중국어의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 영혼을 팔 필요는 없다. 국사와 국어를 영어로 교육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왜 지구 알프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생각나는지 알 수가 없다. (송광사 올림)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한눈에’

대한 장애인체육회 온라인 정보센터 운영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장항숙)는 24일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제공을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생활체육정보센터(sports.kosad.or.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정보센터에서는 생활체육대회 및 행사 일정, 동호인 클럽,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체육관리 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체육에 참여를 해보고 싶

다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1577-7976)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된 상담코너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21일까지 활동 중인 생활체육 클럽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았으며 1월 현재 모두 510개의 클럽(광주 19곳, 전남 54곳 포함)이 등록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정보에 목마른 장애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커뮤니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우리 아이 어휘력·상상력 풍부해졌네

광주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4,000여명 혜택

“동생은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동생이 생긴 거란다.”

“엄마, 그럼 또 결혼해요. 동생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어요.”

주부 하경연(30)씨는 요즘 부쩍 호기심이 늘어 질문이 많아진 다정 이(6)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웃는다. 다정이의 호기심은 대부분 책에서 시작된다. 이번 호기심은 독서지도 교사가 ‘동생이 생겼어’라는 책을 읽어준 뒤 궁금증이 생긴 것. 하씨는 다정이의 상상력이 풍부해진 것은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의 도움이 컸다고 말한다.

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방문 독서지도 프로그램이다. 아이북랜드 등 7개 업체가 위탁 맡아 진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독서지도교사가 일주일에 한번, 가정방문해 4권의 책을 읽어주며 한글지도도 한다.

하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이의 어휘력과 상상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책값도 만만치 않는 상황에 한

달에 1만4천원을 내면 아이에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힐 수 있는 데다 책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1월 현재 북구 1천603명, 서구 1천460명, 남구 610명, 동구 280명 등 모두 4천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가구의 월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50만 원가량) 이하인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맞벌이 부부는 우선 지원한다. 읍면지역은 저소득층 가구 중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

불교문화재 전문가 양성

성보해설사 강의 개설

국내 처음으로 불교문화재를 전문으로 소개하는 성보해설사 양성된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호 스님)은 남도불교문화연구원(회장 황호균)과 함께 오는 3월부터 성보(불교문화)해설사 양성강의를 개설한다. 송광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등 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가 주관하는

성보해설사 과정은 사찰예절, 수행법 등 불교 기본 소양 교육과 함께 불상, 불교건축, 불화, 불교문화 유산 관리, 불교 설화 등 모두 32개 강의가 마련됐으며 현장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1년 과정으로 준비된 이번 강의는 성종경, 강현구, 신홍섭 등 문화재 위원과 이순규 광주불교대학원장, 교원을 태화강, 이봉수 건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문의는 광주불교교육원 062-228-909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주)223-1140, 5210 0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주)972-4585 011-604-8205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름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불류상고, 복자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 062-226-0047 ~ 8
명석한 컨리셔,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무름 상가주택
대지238㎡(72평), 연건평396㎡(120평)인 3층 코너 건물이 3억5천만 원입니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불 앞서는 사람불- (주)육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육선코리아 무료상담